

ANTI-FREEZE

~ 나에게로의 초대 ~



‘나’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온갖
생명과 거미줄처럼 얽힌 무수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림: 하호하호

ANTI-FREEZE

안티-프리즈

ANTI-FREEZE(안티-프리즈)는 ‘~을 방지하다’라는 뜻의 접두사 ‘anti-’와 ‘얼어붙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freeze’의 합성어이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가 단절 없이 동등한 상호작용을 계속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매거진 『ANTI-FREEZE』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년 환경 + 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생태 감수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1996.

그룹사운드 신촌블루스 출신 가수 정경화가 1996년에 발매한 앨범 『My Blue Dreams』의 타이틀곡이다. 「나에게로의 초대」는 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사랑이 담겨 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내는 일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독자들에게 바란다. 나,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다정한 사랑을 보낼 준비가 되었기를!

편집자 X 𐄂𐄂𐄂

3

아직 방황하는 당신을 위로해 줄 영화

18

〈레이디버드〉

‘덕업일치’의 소망을 이루어 보고서

춤을 추며 얼어붙지 않기 그리고 누워 있기

특집 기사

4

2023 환경 + 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 개막

작가_장인희

8

거울 조각으로 ‘순간’을 엮어

‘시간’을 만드는 작가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18

여름 채소 콜드 파스타

시선 담기 II _타로인류학

19

칼의 노래

편집실 PLAYLIST

19

Vol1.나에게로의 초대

이유 있는 인터뷰

12

지구를 위한

1,000명의 나 = 1,000개의 해결책!

시선 담기 I _턱피는여자들

14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시작했어.

수많은 지층이 얹혀 만들어진 나의 생태계.

어린이를 위한 안티-프리즈 즐기는 법!

16

알쏭달쏭 낱말퀴즈

17



편집자 X 𐄂𐄂𐄂

‘덕업일치’*의 소망을 이루어 보고서

춤을 추며 얼어붙지 않기 그리고 누워 있기

글: 강연섭(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글: 김정민(건축가, 디자이너)

왜 “생태계”인가를 먼저 이야기해본다. 내 소속을 조금 넓게 보아 ‘지구인’이라 했을 때, 기후위기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는 내겐 없었다. 나의 업(業)감수성이 지금 당장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직업인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한 것이 작년 이맘때쯤부터였다. 가혹한 날씨를 피부로 겪으며 열심히 짊어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탄소배출량 감소만큼이나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기후변화, 자원남용, 서식지 황폐화 등 기후위기의 여러 현상들은 생물다양성을 손실하는 주범이며 자연의 수용능력 자체를 약화시켰다. 이 손실은 자연의 기후조절 기능을 줄이고 이는 또 다시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이 된다. 때문에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계, 그 시작은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기후위기의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생물, 동식물,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곳, 프로젝트 키워드는 바로 “생태계”다.

나는 생태계의 온갖 생명들과 거미줄처럼 얽힌 무수한 관계들, 그리고 무한한 확장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주 조그마한 버섯이나 메뚜기 같은 것도 다 다르게 생겨 나름대로 독립적 개체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버섯과 메뚜기와 나무 밑둥이나 아무렇게나 자란 풀들의 집합은 또 하나의 유기체같이 살아있다. 인간인 나, 인간들이 이룬 사회라는 군집, 그리고 인간에 의해 창조된 문명이나 기술까지도 일종의 유사생태계를 이룬다. 여기서 ‘다양성’과 ‘공존’은 생태계라는 개념이 가진 속성 중 가장 아름답고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기획자로서 어떤 것에 매료되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실현하거나 평범함을 특별하게 설득한다는 것은 적잖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특별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으니까. 특히 그 대상이 ‘어린이’라는 존재라면 더더욱 말이다.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 끝에 나는 그들을 대상화하는 것에서 해방되기로 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 멈추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 인간의 삶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상정했을 때 그 중 작은 값 어딘가 어린 누군가가 있고, 나는 내 스펙트럼 중간 값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너무나 빨리 어른이 되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어떤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곤 한다. 수십억 개의 스펙트럼과 끊임없이 변하는 값들은 무한할진대, 그렇기에 업(業)에 취향의 특별함을 담아 실험적이더라도 색다른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 오히려 누군가의 역할이 아닐까? “덕업일치”를 향한 나의 소망이야말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공존 그 자체다…! 설령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거나 또는 공론과 연대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촉매가 된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2023년을 살면서 만장일치만큼 지루한 일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특별함이 필요하다.

※ ‘덕집’과 직업이 일치했다는 뜻으로, 비교적 최근 만들어져 널리 쓰이는 말이다. 덕후(어떤 분야에 몰두해 깊은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관심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강연섭	INSTAGRAM @excitinglunch	김정민	INSTAGRAM @jminutemaid WEBSITE www.jminutemaid.com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편집자 강연섭은 기술매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고 있다. 기술매체를 연구해 세상을 인지하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아티스트들의 예술 활동에 크게 흥미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나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으로 인도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당장은 작고 무해하고 에너지 넘치는 인간들과 손잡고 우리의 엔트로피를 무한히 높여 보기로 했다.			
김정민은 건축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을 포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에 살아가는 주체들에 대해, 그 중에서도 공간이 없는 주체들의 공간에 관심이 많다. 이때 주체는 인간만을 상정하지는 않으며, 식물과 동물, 생물과 비생물, 건축과 자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도시의 거대논리로부터 배격되어 자위되고 있는 이들의 미시역사를 다각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대안적인 도시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 서울퀴어문화페스티벌의 멤버로 2019년부터 활동하며 퀴어이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발행인: 유인택(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 기획: 강연섭 | 코디네이터: 조소정 | 책임편집: 강연섭, 김정민 | 글: 강연섭, 김정민, 박수현, 이지수, 이후선, 장인희, 정수경, 진민섭 | 디자인: 김정민 | 내지 일러스트: 이지수 | 사진: 송유섭 | 인쇄: 지구나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학예지원: 문형순(총괄, 학예운영실장), 최혜경, 김형준, 박민주 | 홍보: 박지은 | 시설지원: 강병현, 이홍일, 이경근, 박성모, 손지완 | 전시운영: 박희정, 황수진, 이수진, 나우철, 유세정 | 안내: 김혜선, 장현주, 문효림, 김수연 | 미화: 엄현진, 임미희, 강옥란

Copyright 202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All rights reserved.

이 매거진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 환경 + 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자료 제공자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https://ngcm.ggcg.kr/> 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23 환경+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 개막

글: 강연섭(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현실을 냉철하게 통찰하면서도 로맨틱한 가사로 풀어 내는 싱어송라이터 겸정치마는 그의 곡 [Antifreeze]에서 이런 가사를 노래한다.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한, 불안하기만 한 지구인들에게 ‘그럼에도 삶의 터전에서 낙관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를 첫 호의 특집 기사로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두 번째 환경 + 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전이 2023년 8월 1일 개막했다. 지난해 진행된 첫 번째 환경 + 예술 프로젝트 아카이브 자료집의 마무리 글인 [미래 지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획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가 가까운 미래에 유례없는 기후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최후의 결과가 어떨는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더불어 더더욱 변화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볼 때이다.”

바야흐로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이는 인간들이 앞으로 당장 살갓에 스치는 매우 혹독한 자연재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연의 역습을 인간은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 밖엔 없을까? 이번 프로젝트는 이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자연에 화해를 청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지난해 ‘자원순환’에 이어 올해는 ‘생태계’를 키워드로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보는 ♥오픈—마인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의도를 관통하는 단 한 단어이자 제목은 바로 “ANTI-FREEZE(안티—프리즈)”이다. “ANTI-FREEZE”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미시적인 미생물의 세계부터 벌과 곤충, 잡초와 작물, 꽃, 새,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생태계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그 자연스러운 순환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하여 기획자를 비롯한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들이 생태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연대하며 마치 생물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나아가 ‘생태계’라는 의미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인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생태계 속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존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얼어붙은’ 유희공간들을 아티스트의 상상력 가득한 작품으로 채우고, 어린이 관람객들의 손길을 더해 박물관 곳곳을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깨워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4명(팀)의 참여작가인 박수현, 소수빈, 장인희, 피스오브피스(이연우, 천근성)은 각각 생태계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선들을 작품에 담았다. 이들은 자연의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그리고 인간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의미를 확장하고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공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 전시 기간 동안 총4호의 연계 매거진 『ANTI-FREEZE』를 발행한다. 각 호별 주제와 연계한 작가, 작품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생태계에 관한 담론을 다룰 예정이다. 매거진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되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https://ngcm.ggcf.kr/>

[전시 이모저모 I] 장인희 작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손잡고 더 아름다운 전체를 만들어요”



장인희, 전시 설치 전경, 2023. 거울시트지, 특수시트지, PVC 공
〈세상의 조각들〉, 〈나처럼 해봐요〉, 〈또 다른 세상〉, 〈세상 클리기〉

장인희 작가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대표적 유희공간인 야의 중정을 재미있고 생기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평범한 유리창과 회색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박물관 중정 벽과 바닥에 거울, 홀로그램 등 다양한 소재의 사람 모양 시트를 부착하여 공간을 구성했다. 모두 다른 사람의 형상들이 모여 아름다운 전체를 완성하는 그의 작품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모여 사는 사회적 생태계를 보여주는 듯 하다. 또 관람객은 거울 소재의 작품들에 자신을 비춰보며 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들과 관계 맺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장인희, <세상의 조각들>, 2023
거울시트지,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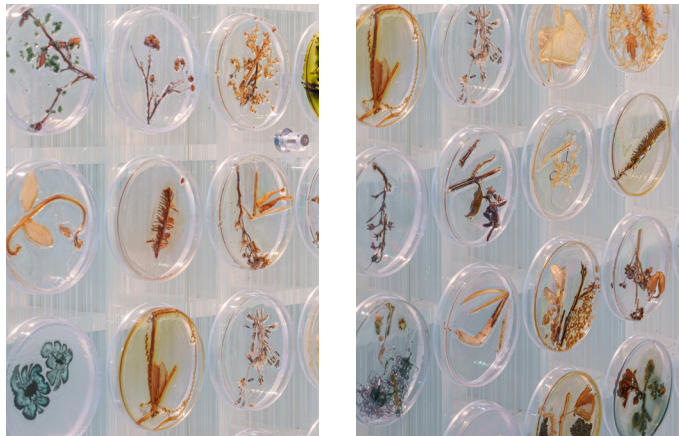
[전시 이모저모 II] 소수빈 작가의 상상은 끝이 없다! 미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소수빈, <인공정원>, 2023
아크릴, 모니터, 영상, LED 성장등, 가변설치



소수빈, <미래식물의 공진화>, 2023
회전판, 3D 프린팅 PLA, LED, 알루미늄, 손전등, 가변설치



김소장실협설(소수빈, 장인희), <새로운 공-존 시스템: 혼종실험>, 2023
50x85x186(h)cm



소수빈, <신-생태계의 휴리스틱>, 2021-2023
식물, led, 로봇, 아두이노, 파이썬, 드로잉 등, 가변설치

[현장르포] 연간 800만 마리 새들의 무덤 된 투명유리벽….
박수현 작가, “공공미술로 새들을 살려요”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새들이 유리벽과 창에 충돌하여 목숨을 잃는다. 인간 중심의 미감과 편의를 위해 설계된 유리 구조물 앞에서 새들은 가차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대다수의 새들은 눈이 양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이 비치는 유리벽이 정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또 비행에 최적화된 새의 골격은 뼈의 속이 비어 있어 가볍지만 충돌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평균 비행 속도가 36~72km인 도시의 새들이 유리벽에 충돌할 시 대부분 두개골이 깨져 죽는다. 특히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의 경우 건물의 디자인이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거나 그 자체가 공공미술 작품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에 외관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한 전면 유리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곳이 새들의 무덤이라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뮤지엄 답게’ 모색해 보고자 했다. 소요산의 능선이 아름답게 비치는 중정의 전면 유리벽에 조류충돌방지 글라스 시트를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풀어 내는 시도를 하였고, 작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2.6.9. 제114호)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무늬 규칙을 85% 이상 충족한다. 물론 예산 등의 현실적인 상황은 완벽한 버드세이버를 만들기엔 부족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뮤지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담론의 장을 열 수 있는 실천적 첫걸음을 내딛었음은 분명하다.

1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이나 유리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붙이는 스티커이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새들이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5x10cm 간격을 지키고 도트무늬나 라인 무늬, 혹은 그에 준하는 기하학적 무늬 등을 권고하고 있다.

공포, '23.6.11. 시행)에 명시된 ‘버드세이버’¹의 무늬 규칙을 85% 이상 충족한다. 물론 예산 등의 현실적인 상황은 완벽한 버드세이버를 만들기엔 부족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뮤지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담론의 장을 열 수 있는 실천적 첫걸음을 내딛었음은 분명하다.



박수현, <산(散)>, 2023, 오디오 리액티브 비주얼,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한 버드세이버

작가노트

조류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새들이 건물에 날아들지 않게끔 유리벽과 창에 설치되는 ‘버드세이버’는 일종의 멀어짐을 통한 함께 있음의 시도이다. 자연과 인간이 한 데 모여 섞이며 살아가기 위해선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를 지워야 하지만 이미 세워진 경계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작품을 기획하였다. 박물관 2층 복도에서 내다보이는 소요산의 풍경을 뜻하는 동시에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빌려와 제목을 붙인 <산(散)>은 흩어지는 소리를 통해 사라진 존재를 기억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새소리의 가장 높은 주파수대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듯한 소리 반응형 이미지를 겹쳐 보이는 우연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최종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을 가진 전통 건축의 ‘차경’²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건물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빌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미 많은 경계가 생겨버린 지금,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풍경뿐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보는 안, 다시 말해 자연이 인간을 바라보는 풍경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 ‘경치를 빌려온다’라는 뜻의 전통 건축 용어. 문이나 창을 하나의 액자(frame)로 활용하여 자연의 풍경을 그림처럼 담아 경관을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부동산 바로지금] 9월 둘째 주 분양 시장 열려….
파격 혜택에 식집사들 벌써부터 ‘이목집중’
피스오브피스의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

9월 둘째 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옥상정원에 조성된 식물 아파트 단지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건설사(이자 문화예술 콜렉티브)피스오브피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사망신고(폐기물신고)를 받은 폐가구를 직접 수집하고 기부받아 가공하여 박물관 옥상정원에 식물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었다. 이들에 사용된 ‘꿈에그린, 베르디움, 포레스트, 포레나…’ 등은 ‘자연’과 ‘초록’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분별한 아파트 단지 확장으로 인한 엄청난 폐기물 발생이라는 이면을 조명하고 있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식물 아파트 분양을 통해 도시 주민들에게 작물을 키워보는 경험을 일상으로 연결하도록 유도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개인의 실천적 영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아파트에서 버려진 물건들로 만든 이 아파트 속에 시민들과 씨앗을 심고 가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스오브피스(이연우, 천근성),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 202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옥상정원에 설치, 폐가구, 자투리 목재, 흙, 씨앗

한뼘의 땅이라도 녹색으로 물들게 하자. 식물을 위한 아파트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 사이클로빌



명패 부착
실투자금X

원하는
작물 OK

업사이클
목재 제작

분양/임대 문의 ys@ggcf.or.kr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옥상 정원 속 소요산뷰

식물을 위한 최적의 장소!

1분양 신청자의 명패를 달아드립니다.
-박물관 내 식물을 위한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새 것이 아닌 폐목재를 이용합니다.
-길거리 유기사물을 수거하고, 목공방에서 자투리 목재를 기부 받습니다.

3원하는 작물을 직접 수확 가능!
-식물 키우기에 적합한 최고급 풀음선 임대 아파트

입주자 大모집

자세한 분양 일정은 (ngcm.ggcf.kr)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이미지 제공: 피스오브피스

6

특집기사

2023 환경+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일어불지 않을 거야!》개막

7

거울 조각으로 ‘순간’을 엮어 ‘시간’을 만드는 작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생태계, 그리고 그 속에서 무수히 맺어지는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ANTI—FREEZE(안티—프리즈)』 제1호 「나에게로의 초대」의 아티스트로 장인희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장인희

장인희 작가의 작품세계가 지향하는 바는 ‘공생’이다. 분화와 통합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순간’들로 이루어진 개인의 삶, 그리고 모두 다른 순간들의 덩어리인 개개인의 삶들이 모여 이루는 현대사회의 유기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하여 거울, 홀로그램, 하늘이 담긴 그래픽 시트, 거울 소재의 대형 공 등 재미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더욱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평범한 유리벽과 회색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박물관 중정의 벽과 바닥을 다양한 소재의 사람 모양 시트로 가득 채웠다. 모두 다른 사람의 형상들이 모여 아름다운 전체를 완성하는 그의 작품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모여 사는 사회적 생태계의 모습을 떠올리고자 했던 이번 전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노트

예술가들에게 예술이란 느낌을 구체화시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작업은 비가시적이며 모호하게 포착되는 시간 관념과 시간 경험을 시각화 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 관념에서 ‘순간’이란, 그 압도적인 양으로 인하여 무한한 듯 느껴지지만 모든 순간들은 유일무이하며 반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질적 풍부함을 갖는 순간들이 모여 개개인의 삶(시간)을 구성한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60조개의 세포를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들도 일일이 사유되지 못하지만, 생명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듯 시간은 순간에서 생명을 얻는다.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은 회로애락을 담은 풍부한 순간들이 다양한 관계로 조직되어 구현되는 ‘살아있는 시간’을 표현한다. 자유로운 가위질로 생성된 모두 다른 형상의 거울 조각들이 새로운 전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우연과 필연의 교차점에서 탄생한다.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을 의미하는 거울 조각들은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변화한다. 다름이 희석되지 않고 총체적인 하나로 기능하는 유기체처럼, 작품은 삶의 모든 순간이 유기적으로 종합된 입체적 시간이다. 작품은 지속적으로 흠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를 제거하지 않고 조화롭게 기능하는 전체와 개개인의 삶과 순간들을 표현한다. 조화롭게 기능하는 전체(작품)는 개개인의 삶이자 특별한 순간들의 덩어리로 살아 있기에 늘 변화하는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 낸다.



〈나처럼 해봐요〉, 2023, 거울시트지, 가변설치

동근 유리벽에 부착된 사람 모양의 거울 조각들에 내 모습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 모습이 보이나요?

〈세상의 조각들〉, 2023, 거울시트지, 가변설치

모두 다른 사람들의 모양을 한 거울 조각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쌓이고 있어요. 거울조각들은 모두 다른 모습을 비추는 퍼즐처럼 보여요.

〈또 다른 세상〉, 2023, 특수시트지, 가변설치

바닥의 사람 모양 거울 조각들은 다양한 하늘을 품고 있어요. 마치 땅의 거울인 물웅덩이처럼, 다른 세계를 엿보는 듯한 상상을 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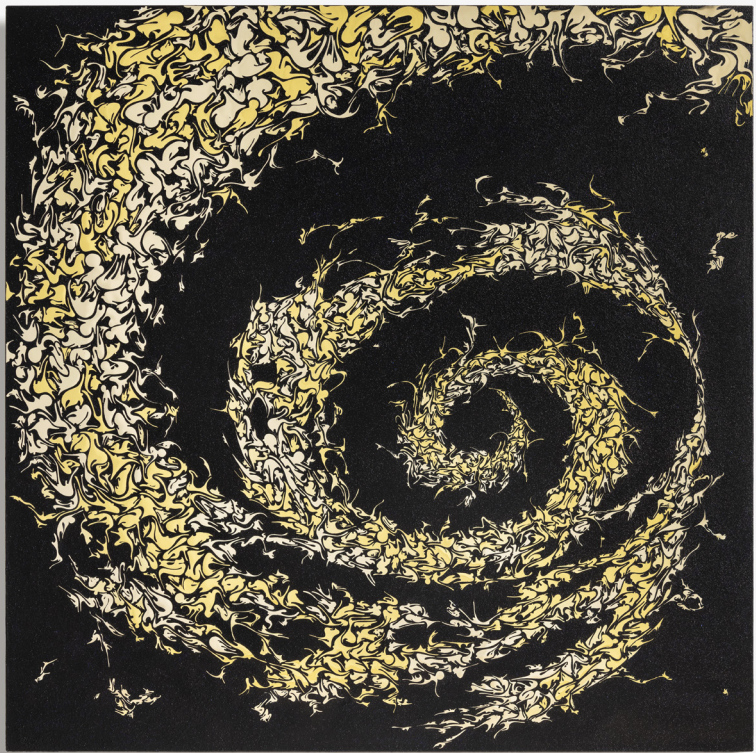
〈세상굴리기〉, 2023, PVC공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대한 거울 공을 굴러보세요! 내 모습과 주변 환경이 데굴데굴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작가의 주요 작업 소재인 거울은 멀리서 보면 반짝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모든 것을 표면에 가감 없이 담는 거울 표면의 물성과 조각난 빛이 구현하는 세상은 늘 새롭다.

작품들은 1. 거울 회화, 2. 부유하는 순간, 3. 거울 퍼즐, 그리고 4. Time to kill(설치)로 나뉜다.



거울회화

오려진 조각들이 평면에(캔버스, 판넬등) 부착되어 화면을 구성시키는 작업군인 ‘거울 회화’시리즈에서는 오려진 조각들의 틈새가 중요하다. 거울 조각 사이로 드러내는 화면은 반사 이미지들과 섞이며 새롭게 태어난다.

Emitting 001_어떤 기억은

hand—cut mirror PET film, mixed media on canvas 130x130cm, 2022

부유하는 순간

총 4~5개의 투명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리즈는 입체에 가깝다. 각각 다른 레이어에 위치한 조각들은 크기, 형태, 밀도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역시 작품의 일부본으로 참여하여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Recollection 2001

hand—cut mirror PET film on clear acrylic plates 85x85x10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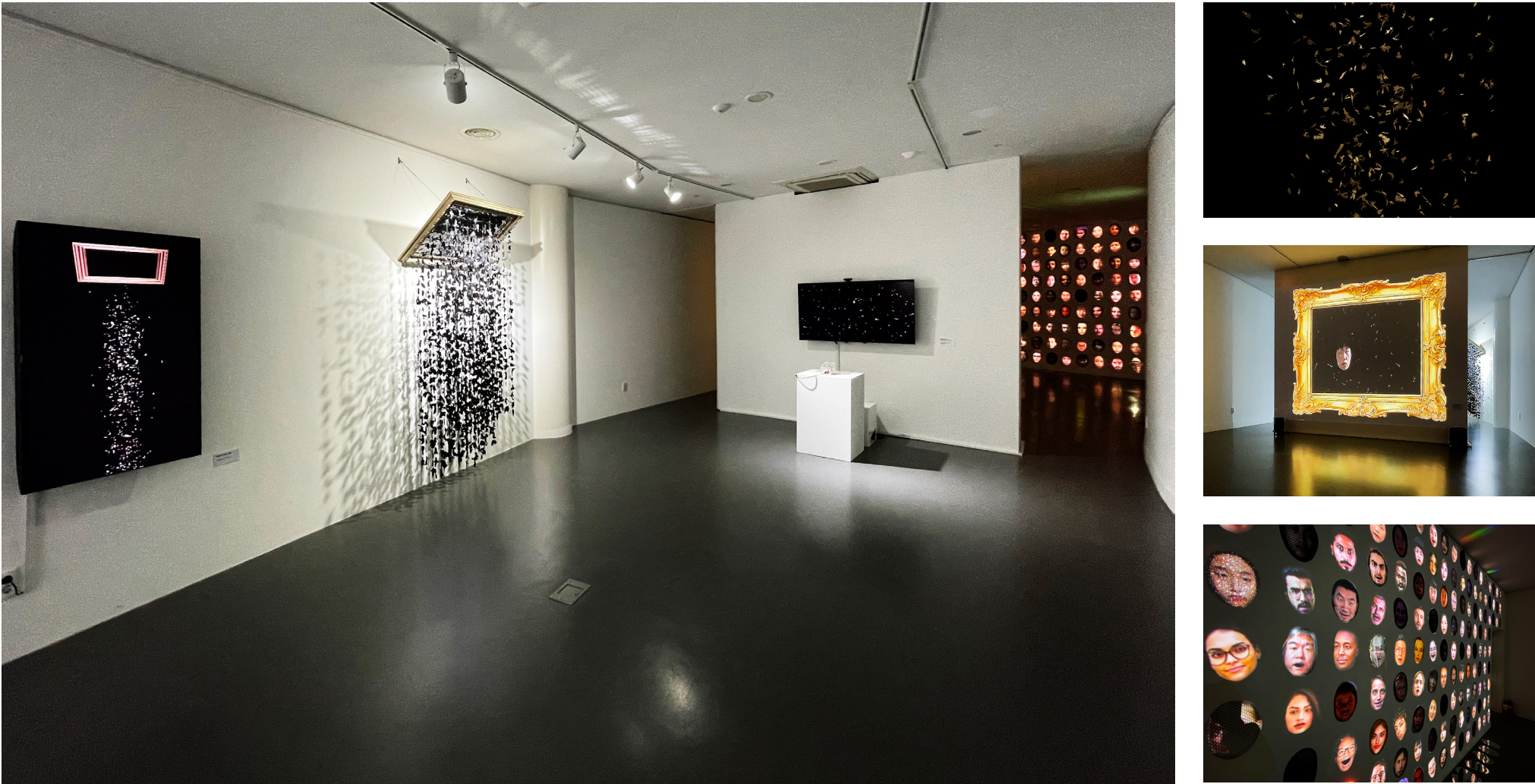


거울퍼즐

‘거울 퍼즐’은 유일하게 스케치를 하는 작품군으로, 인물형으로 오려진 거울 조각들이 다시 전체의 형태로 조립되어진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조각들은 미세하게 형태가 변형되었기에 다시 조립되더라도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는 시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을 완벽하게 기록하더라도 그 순간이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When parts become the whole

hand cut mirror PET film, plaster 100x50x50cm (2 pieces), 2017



Time to kill

이 시리즈는 설치/영상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여지는 순간, 즉 반사상을 가질 때만
생명을 얻는 거울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통로로 작용하며 주변환경과 연동하여 시각을 확장한다.
이러한 거울의 특징을 다양한 미디어 작업을 통해 실시간 반응하는 형태로 구현한다.

거울의 반란은 총3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PartI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는 영상,
PartII는 관람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다른 공간에 송출하는 부분,
PartIII는 다른 공간에 송출된 관람자의 얼굴과 반응하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다.

거울의 반란

PartII에 관람객의 얼굴이 나타나면 맞은편 벽에 있는 PartIII의 얼굴 영상들이 입을 벌리며 마구
떠들다가 관람객의 얼굴이 사라지면 벽의 얼굴들은 일제히 조용해지며 눈만 굴린다.

Projections, speaker, mixed media, 가변설치, 2022
(협업: 한국기계연구원 조정대 박사/협업주제: 토틸툴 유연소자, OLED)



<2023년 7월 23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한 어린이 56명의 즉석 드로잉>, 2023, 종이에 사인펜 (디자이너: 이지수)

지구를 위한 1,000명의 나 = 1,000개의 해결책!



사회적협동조합 ‘오늘의 행동’

인터뷰어: 강연섭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인터뷰이: 서경원 (오늘의행동 생활학자), 위 사진의 왼쪽
정경훈 (오늘의행동 생활학자), 위 사진의 오른쪽

<오늘의행동>을 알고 싶어요.

서 <오늘의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질문을 던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20년 7월에 설립했구요. 저희는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오다가, 사회적 사건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며 ‘왜 세상이 점점 악화해지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고민을 거쳐 <오늘의행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서경원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서로 생활학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20년 정도 캠페인 기획 등을 주로 진행했었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적당히 잘 살면서 계속해서 활동가로 살아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를

의

행

동

비슷하게 저희가 관심 있는 ‘생활’이라는 영역과 그 속에서 스스로 ‘변화’라는 부분을 만들어 내기를 바랐고,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 관찰자이자 행동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활 학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어요.

정 특히 요즘은 다들 자신의 생활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혹은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가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생활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내 생활을 스스로 들여보다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행동 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저희의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서 일상에서 뭔가를 꾸준히 해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기후 문제에도 다양한 해결 방식이 존재하죠.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방식, 모든 것이 다른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다르구요.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정답이고, 그런 각자의 해결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나’가 있으면, 1,000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활’이라는 것에 ‘학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장래희망: 생활학자

정 ‘생활학자’는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고요. 더 나은 삶, 그리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활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행동을 돕는 도구’의 시작

정 우선 개인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낱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행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나만의 행동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아, 이렇게도 행동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 ‘각자의 삶에서 원하는 시간에 행동하게 만들자’였어요. <오늘의행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꼈는데, 주 원인은 ‘무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것을 관심과 이해라는 긍정적인 접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도구’나 ‘행동 제안’을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워낙 바빠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 스며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원하는 시간에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동을 돕는 도구’ 제작 과정에서 특별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요?

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답을 제시하지 말고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할 것, 두 번째는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넣으려고 노력해요. 이웃과 이웃, 사람과 생태계일 수도 있고 생태계와 생태계 간일 수도 있어요.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최대한 고민하는거죠. 마지막으로는 ‘일상’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손수건처럼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련되어 있는데, 휴지를 덜 쓰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를 안 쓰니까 전기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물과 관련되어 있기도 해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다음엔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서 지금 화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아직 도구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그 길가에서 100m 달리기를 해 보는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 시속 30km가 엄청 빠른 속도예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 100m를 13초에 뛰는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m를 13초에 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실제로 30km로 달려 보면 사실 정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게릴라 달리기를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려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요.

『안티-프리즈』 첫 호의 주제인 ‘나’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행동>과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요?

서 9월 셋째 주 토요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4주간 JYP 엔터테인먼트와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어요. 팬층 자체가 MZ세대들, 이른바 ‘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웃음) 세대이기도 해서 저희도 되게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현대 사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빈곤 문제는 빈곤 문제로, 환경 문제는 정책 문제로 이렇게 1:1 연결되지 않아요. 한 사회 안에서도 문제에 대한 시선과 해결책이 각자 다 달라서, ‘나의 삶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하는 것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을 믿으시나요?

정 어느 순간 시민들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뚝뚝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문제도 정부 탓, 기업 탓밖에 없고 냉소와 무관심밖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정부나 기업도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 노선도 방향 화살표가 있어요. 서울에 있던 한 청년이 자기가 불편해서, 내 동네에서 8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그것을 먼저 정책으로 채택했고 이제 전국으로 퍼져서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누군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 행동인데 서로서로 공감대가 커지다 보면 제도적인 부분과 같이 더 큰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 지금 하반기에 ‘나의 목소리 도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1인 시위 도구인데.(웃음) ‘나의 목소리 도구’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말해요. 교과서를 넘어서 실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 아닐 거야. 이것을 이렇게 해서야 괜히 목 얻어먹고 누군가가 뭐라고 할 거야’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무난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사회가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생활학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정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속에서 이미 어린이들도 잘못된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저는 세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사회가 정해 놓은 정답보다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과도, 아이들과도, 친구들끼리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도요. 자신만의 행동의 답을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저런 씨앗 폭탄을 던지는구나! 나는 이런 방법이 더 맞아. 너도 너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와 공감을 나누는 연대가 커질 수 있어요. 조금은 틀렸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답을 찾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 어른들과 많이 나누다 보면 어쩌면 어른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이 알파 세대가 같이 푸는 그런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동을 돕는 도구

물준날

건강한 공동육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의 실천적 첫걸음이 되어줄 공동 육식(植)텃

비-커밍(See-coming) 벌을 위한 호텔

도시에서 잘려나간 나무로 도시에 벌을 불러오는 호텔을 만들어요

너와이름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뽑아버려야 할 잡초, 벌과 나비의 기준으로는 생태계를 다양하게 유지시켜주는 꼭 필요한 생명

운동운동도구

나는 절대 담배꽂초 따위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지. 꼭 짝어 담배꽂초를 줌는 운동운동도구

※자매품: 물살이의 길

초가 타면서 어둠을 밝히는 삼천육백 초, 한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스아워(Earth Hour):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이 주최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하는 시간이다.



기후 위기에 접근하려면 유병에 갇힌 북극곰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짐을 넘어 행동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고 내 문제를 돌아보는데 초 만큼 좋은 도구가 있을까요? 초를 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우리의 연관성을 찾고 기후 위기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오늘의행동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시작했어.

“모든 사물에 공통된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가장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눈 뜨게 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물에서 발견되는 두 개의 무한함, 즉 무한하게 큰 것과 무한하게 작은 것이다…. 자연은 모든 사물에 자신의 모습을 물론 자신의 창조자의 모습까지 새겨 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자연이 가진 두 가지 무한함을 공유하고 있다.”

존 버거, 『A가 X에게』 (2009, 김현우 옮김, 열화당)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모두 자기 말이 들어진 곳이 중심이라고 한다.[인간 > 자연][인간 > 그 외]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 신기하다. 그럼 80억 인구 각자의 중심이 엉켜진 곳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인간중심의 생태계 속에서 인간 개인의 삶은 어떻게 형성되고 재편되는가. 일단 인간이 중심은 맞나. 물리적인 생태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 이런 구조에 관심이 많다. 본 글을 포함한 총 네 편의 글에서는 그 구조를 ‘지층’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가 만들어 내는 것들, 글, 책, 전시, 프로덕트…. 모든 것들은 이 지층에서 시작된다. 내가 세상에 내미는 미약한 것들은 우선 내 땅에서 출발해 어딘가를 떠도는 중이다. 중심이라기엔 빈약하고 다른 구조들과 서로를 굴절시키면서.

1 나는 1990년, 백마의 해에 태어났다. 삼남이녀 집안의 셋째 아들 내외의 일남일녀 중 막내. 집안의 수장인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와 평생 강단에만 선 사람이었다. 전공이 토목이었나 그랬다. 참 땅이랑 어울리는 사람이다. 누구와도 깊은 애기를 하지 않는 사람. 항상 서재에서 책만 읽고 글만 쓰는 사람. 나의 할머니는 남녀 선호 사상이 강한 여성이었다. 이 집안의 각 아들 내외에게는 ‘일남일녀’가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태어났다. 백말띠의 해에 여자아이를 갖게 된 엄마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1 여아 100명이 태어날 때 남아는 116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 자연 성비는 105명이다.

걱정을 빙자한 핀잔들. 엄마는 주저 없이 나를 낳았다. 116.5명. 1990년 출생아들의 성비다. ¹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도핀의 결혼식에 맞춰 그려진 오트리치와 부르봉 왕가의 가계도
Arbre généalogique des maisons d'Autriche et de Bourbon, gravé à l'occasion du mariage de Louis Dauphin et de Marie-Antoinette (16 mai 1770)
Michaël-Angelo Borghi, etching, 56 x 21.5 cm, ©Gallic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Estampes et photographie, RESERVE QB-370 (1)-FT 4

집에서는 평등했던 오빠와 나의 관계가 왜 조부모의 댁에 간 순간 기울어지게 되는지 궁금했다. 시대의 한계가 있겠지만, 나의 부모는 최대한 우리가 동등한 기회를 나누기를 원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런데 조부모의 댁에만 가면 부모님이 공들여 만든 이 설정값이 사라졌다. 한 살 터울의 오빠가 왜 유난하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지(우리 오빠는 할머니의 최애였다), 왜 항상 나는 남성의 사촌들이 다 고른 뒤에 남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하는 건지, 왜 막내며느리인 엄마는 항상 대가족의 설거지를 하는 건지, 왜 식사 자리의 모든 여성은 다른 식탁에서 먹어야 하는 건지. 우리 집에서는 익숙한 오빠를 대하는 나의 동등한 태도가 할머니의 레이더망에 걸릴 때가 왕왕 있었다. 백말띠의 드센 여자아이가 집안의 보물인 오빠의 기를 죽인다면 나의 엄마는 많이 혼났다.

3 유치원-초등학교에 진학하며 세상에 대한 내 궁금증이 폭발했다. 운동회 날에는 왜 모두 같은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학교에 남자애들은 이렇게 많은 건지², 재가 나를 괴롭히는 데 왜 참아야 하는건지, 왜 반 전체의 눈을 감게 하고 이혼가정의

² 위에서 언급했던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내가 다녔던 신도시의 초등학교에는 한 학년에 15반 정도 있었고,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은 한 반에 8-10명씩 차이 났다. 한 분단이 다 남자아이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은 손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내가 왜 부반장을 해야 하는 건지, 난 반장이 더 잘 어울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어렸던 내 세상의 전부였던 조부모의 집과 우리 집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관계들의 모순에 숨이 막혔던 것 같다. 그래서 운동회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갔다. 백팀이었던 우리 반은 흰색 운동복을 입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말했고, 그는 내 의견을 존중했다. 그날 난 흰 드레스를 입고 운동장을 누비는 아이가 되었다. 그 날의 사진은 가장 좋아하는 유년 시절의 사진이다. 내 나름대로 상징적인 날로서.



초등학교 운동회 날, 어린이 정수경(필자)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흰 드레스를 입고 운동장을 누볐다. (사진 제공: 정수경)

4 이 모든 이야기는 10살이 되기 전의 이야기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부모님께 조부모 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털어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수많은 ‘왜’들에 답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전달 수 없었던 모양이다. 조부모 댁에만 다녀오면 다뤘던 엄마, 아빠는 어린 딸의 고백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날 이후 20살이 될 때까지 엄마와 나는 조부모 댁에 가지 않았다. 설이나 추석 때 부자만 왕복 7시간의 운전을 하고 조부모님 댁에 방문했다. 모녀는 매번 편한 주말과 연휴를 보냈다. 엄마는 그림을 그렸고, 나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며, 각자 하고 싶은 일에 매진했다.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난 친척들은 많은 것들을 물어봤지만, 이미 머리가 커버린 나는 질문자가 원하는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각각의 당사자들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를 비롯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시대에 대항할 수 없는 여성(그리고 용기를 낼 수 없는 대부분의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었을 테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린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 나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5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왜’가 많다. 지금은 ‘툼피는여자들’이라는 인문학도로 구성된 콘텐츠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사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사용되던 퉁피는 제스처, 즉 생각하는 포즈를 차용해 현실에 대입해 보겠다고 주장하는 팀이다.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 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툼피는여자들’은 퉁피를 괴며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기조로 책이나 전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IT 회사등과 손잡고 브랜딩과 콘텐츠 전반을 기획 · 실행한다. 퉁피는 자세를 기조로 우리는 문제를 에두르지 않고 관통하겠다고 다짐한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첫 번째 바리케이트는 나의 작은 생태계, 가족이다. 정상 가족이라기엔 뒤죽박죽이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소 모났지만, 나를 지켜준 곳, 나의 말과 글이 태어난 곳.

0 작은 세상은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내가 만드는 것들이 어쨌거나 세상의 평가를 받게 되었으니까. 크고 작게 또다른 누군가의 삶을 굴절시키లే니가. 나의 퇴적층에서 피어난 것들이, 이제 다른 생태계를 만난다. 무한하게 작은 것과 무한하게 큰 것이 영길 차례다.



정수경
INSTAGRAM @mee.mee.ju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패션지, 예술지 에디터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갔다. 파리1대학 미술사학과 학사, 건축사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건축 큐레이팅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독립 큐레이터로 글과 전시를 만들었다. 그러다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인문학베이스 콘텐츠 기획사 ‘후두(툼피는여자들)’를 창업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내 삶에 묻어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7월 24시간 일하면서 산다. ‘시선은 가장 미시적인 형태의 권력’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는 가를 예민하게 선택하는 중이다.

수많은 지층이 얹혀 만들어진 나의 생태계.

어린이를 위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

즐기는 법!



1.전시 리플렛을 열고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합니다.

2.도장 찍는 작품 순서는 장인희 → 박수현 → 소수빈 → 피스오브피스 를 추천하지만, 마음 가는 대로 찍어도 괜찮아요!

3.자, 이제 추천 관람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온 어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추천 관람 포인트

2



박수현 작가의 뼈대만 남은 등지에
실을 돌돌 감아주세요.
여러분의 손길로 포근한 등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3



미디어랩에 가득한 소수빈 작가의
재미있는 미래 식물들을 구경해요.
인공 식물 자석으로 나만의 정원 모양을 만들어보고,
식물 컬러링북을 자유롭게 색칠해요.

알쏭달쏭
날말퀴즈

줄	수	지	이	사	준	로	몬	더	고	경	최	남	미	냉
김	추	장	희	닥	퇴	대	키	피	잠	웰	후	출	근	싫
소	요	산	교	에	랑	초	정	스	투	한	해	톤	엘	박
수	비	배	나	수	이	게	샤	오	글	어	위	플	란	병
빈	불	친	심	블	거	에	형	브	시	콤	스	기	비	산
주	로	나	레	즈	울	나	양	피	복	도	양	아	무	선
바	장	전	이	번	리	오	들	스	파	수	람	장	워	요
듬	득	더	디	고	신	프	기	공	참	빈	나	인	섭	소
아	장	귀	버	민	안	버	티	리	즈	에	로	희	레	다
소	인	이	드	푸	리	즈	모	안	게	생	발	멘	볼	리
생	칸	후	세	피	구	태	당	로	잘	그	자	로	노	물
태	방	라	기	브	마	지	의	힘	긴	예	소	미	게	소
계	엄	위	박	스	장	초	제	박	노	득	키	라	루	짱
봉	후	레	수	오	대	퇴	라	레	이	버	드	세	이	버
기	카	울	현	스	단	너	의	이	름	은	와	에	나	마

- 1.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매거진의 이름은 ○○○○○○ 이다. (p.2)
- 2.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스티커를 ○○○○○○라고 한다. (p.6)
- 3.일터로 근무하러 나가거나 나오는 행위를 ○○이라고 한다.
- 4.<오늘의행동>이 제작한 ‘도시 식물(잡초)’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도구의 이름 ○○○○○○ (p.13)
(힌트: 키미노나마에와..!)
- 5.전시 《ANTI-FREEZE : 얼어붙지 않을 거야!》에는 총4명(팀)의 작가가 참여했다. ○○○, ○○○, ○○○, ○○○○○○ (p.4)
- 6.○○○란, 어떤 지역 안에 사는 생물군과, 이것들을 제어하는 무기적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체계이다.(어린이용: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 (p.3)
- 7.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매거진에서 추천한 이번 호의 영화는 ○○○○○○이다. (p.18)
- 8.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을 ○○이라고 한다. (p.8)
- 9.다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나는 행위를 ○○라고 한다.
- 10.생산적 노동에 스스로 종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가리키는 한자어 ○○○○
- 11.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역 앞에 위치하고 있다.
- 12.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매거진 이번 호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노래의 제목은 ○○○○○○ ○○이다. (p.19)
- 13.○○○○○란, 세계자연기금(WWF)에서 주최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하는 시간을 말한다. (p.13)
- 14.○○○○○란,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통틀어 일컫는다. (p.3)

광고 문의
어떤 광고든 시원하게 말어드립니다.
ys@ggcf.or.kr

4



전시를 한바탕 즐기고 옥상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피스오브피스의 식물아파트단지를
걸어요. 버려진 가구들이 식물을 위한 아파트로
새로 태어나 초록초록 식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컬러링 도안 제공: 소수빈



〈 레이디 버드 〉

개봉	2018(한국)
국가	미국
상영시간	94분
장르	코미디, 드라마
감독	гре타 거윅
출연	시얼샤 로넌, 로리 맥칼프, 트레이시 레츠, 루카스 헤이스, 티모시 샬라메 등
등급	15세 관람가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불편할 때

‘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어쩌면 불편할 때도 있다. 특히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해 본 청소년기의 흑역사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여전히 내가 방향하고 있고 흑역사를 갇히고 있다 느낀다면, 영화 〈 레이디 버드 〉를 추천한다.

여기, 자신을 “레이디 버드”라 명명한 소녀가 있다. 영화 초반, 다른 이들에게 본명이 아닌 스스로 지은 이름으로 불려달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흔한 청소년 성장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정하는 행위가 내 선택이 아닌 부모님의 뜻대로 구성된 환경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정한 이름을 가지고 직접 선택한 곳에서 삶을 살아내겠다는 청소년기의 치기로 보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비단 청소년기에만 해당할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기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이 정해준 대로 입고, 먹고, 말하고, 일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직접 선택의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극 중 “레이디 버드”가 그렇듯,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씩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다. 가끔은 이러한 선택들로 자신이 방향하고 있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이 영화를 추천하며, 아직도 자신이 방향하고 있다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포스터 출처: A24

여름이 계절의 레시피
되약별에 반짝이는
여름 채소 콜드 파스타

여름의 뜨거운 되약별을 받고 자라 색이 선명하게 무르익은 채소들로 만든 콜드 파스타예요. 인간은 뜨거울수록 힘들어하는데 채소들은 뜨거울수록 단맛이 가득 찬다니 신기하죠. 차갑게 칠링한 화이트 와인과 함께하면 한여름 무더위도 순식간에 낭만으로 바꿔줄,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새로운 파스타입니다.

2인분

가지 1/2개 | 애호박 1/3개 | 양파 1/4개 | 파프리카 1개 | 방울토마토 약 10알
소금 적당량 | 소트 파스타 120g | 올리브유 적당량 | 발사믹 식초 4큰술 | 설탕 1작은술 | 가니시용 바질 잎
좋아하는 재료는 더 넣고 싫어하는 재료는 빼세요! 마트에 판매하는 다른 종류의 채소도 무엇이든 좋습니다.



1. 소트 파스타는 충분히 삶아서 익히고 찬물로 헹궈 식힌 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둔다.***
2. 가지, 애호박, 양파, 파프리카를 사방 1cm 크기로 깍둑썰기한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다.
3.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3큰술 두르고, 양파, 파프리카, 애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순으로 볶는다. 소금을 1작은술 넣어 간한다. 다 볶은 후 한소끔 식힌다.***
4. 한소끔 식은 채소들을 큰 볼에 옮겨 삶아둔 소트 파스타와 올리브유 3큰술, 발사믹 식초, 설탕을 넣고 섞는다.***
5. 접시에 담고 바질 잎을 올려 장식한다.

※바닷물의 염도 수준으로 소금을 넣고, 익히는 시간은 파스타 포장지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차가운 파스타로 먹기 때문에 덜 익히기보다 충분히 익히기를 권해요.
※※※튀다가 프라이팬이 너무 가득 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금씩 덜어내며 볶는 것도 방법입니다.
※※※맛을 보며 발사믹 식초와 설탕은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본 기사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2023, 진민섭 지음, 세락선 사진, 세미콜론)를 발췌/편집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진민섭

INSTAGRAM @huam3house

겨울엔 방어, 여름엔 초당옥수수를 놓치면 큰일 나는, 먹는 데 진심인 사람. 재료에 예민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권숙수'에서 근무하며 사계절 식재료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때마다 제철 재료 챙겨 먹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이후 백화점 식품팀, 푸드 스타트업을 거치고, 직전까지 브랜딩 에이전시에서 F&B 콘텐츠를 만들었다. 취미는 집 앞 슈퍼에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식재료 구경하기. 특기는 "이건 꼭 먹어야 해!"하며 주변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기. '제철 재료 점도사'를 자처하며 계절 식재료를 탐구하는 유튜브 채널 <후일동삼총집>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가 있다.



이후석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6년차 건축 디자이너/타로이스트.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VR/AR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타로에 진심이지만 타로를 신봉하진 않는다. 다만, 타로를 앞에 두고 오가는 대화와 생각의 힘을 믿는다.

타로에서 ‘칼’이 의미하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쟁취’입니다. 목표를 위한 ‘투쟁’과 그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성취’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있는 흥미로운 상징물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마 칼이 그려진 카드들이 대부분 아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것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카드는 언제나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상징물에 비해서 비극적인, 어쩌면 꽤 극단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 카드가 바로 이 ‘칼’입니다.

그런가하면 칼을 뽑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만 뽑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제가 5년간 많은 사람들의 타로를 보며 발견한 아주 기묘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3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타로를 보는 저의 방식상, 특정 상징물을 한 장 이상 뽑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이 그려진 카드를 뽑는 사람들 중에는 한 장의 칼을 뽑는 사람보다 두 장, 혹은 세 장까지도 뽑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첫 오픈카드로 칼이 나오면 저부터 우선 긴장하게 되는 웃지못할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경험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도 칼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있을 뿐더러, 앞서 말했듯 칼이 그려진 많은 카드들이 극단적인

편집실
PLAYLIST
VOLUME ONE
나에게로의 초대

1.Track 9 — 이소라

2.평점심 — 9와 숫자들

3.다나에 — 신해경

4.Self Talking — 황보령

5.Ballroom Extravaganza — DPRIAN

6.What I Mean — A.G.Cook

7.NU 예베오 (NU ABO — f(x)

8.아틀란티스 소녀 — 보아(BoA)

9.민물장어의 꿈 — 신해철

10.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 장필순

11.강강 — 오열(OYEOL)

12.나에게로의 초대 — 정경화

편집실 PLAYLIST는 유튜브 채널 '어박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인류학

1부: 칼의 노래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칼 카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유독 다른 상징물 보다 카드에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연출되어 있는걸까요?

다시 ‘쟁취’라는 의미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취’라는 행위의 기저심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투쟁과 성취라는 두 행위로 간략히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 다만, 이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투쟁과 성취는 각각 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결과인 셈입니다. 한편으로 여기에는 이기적이고 고집있는 모습도 숨어있습니다. 그것이 개인과의 대결이든 세상과의 대결이든, 쟁취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대결구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뇌하고 열망하며 끊임없이 무언가와 부딪치고 싸워나가는겁니다. 오로지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이미지 제공: 이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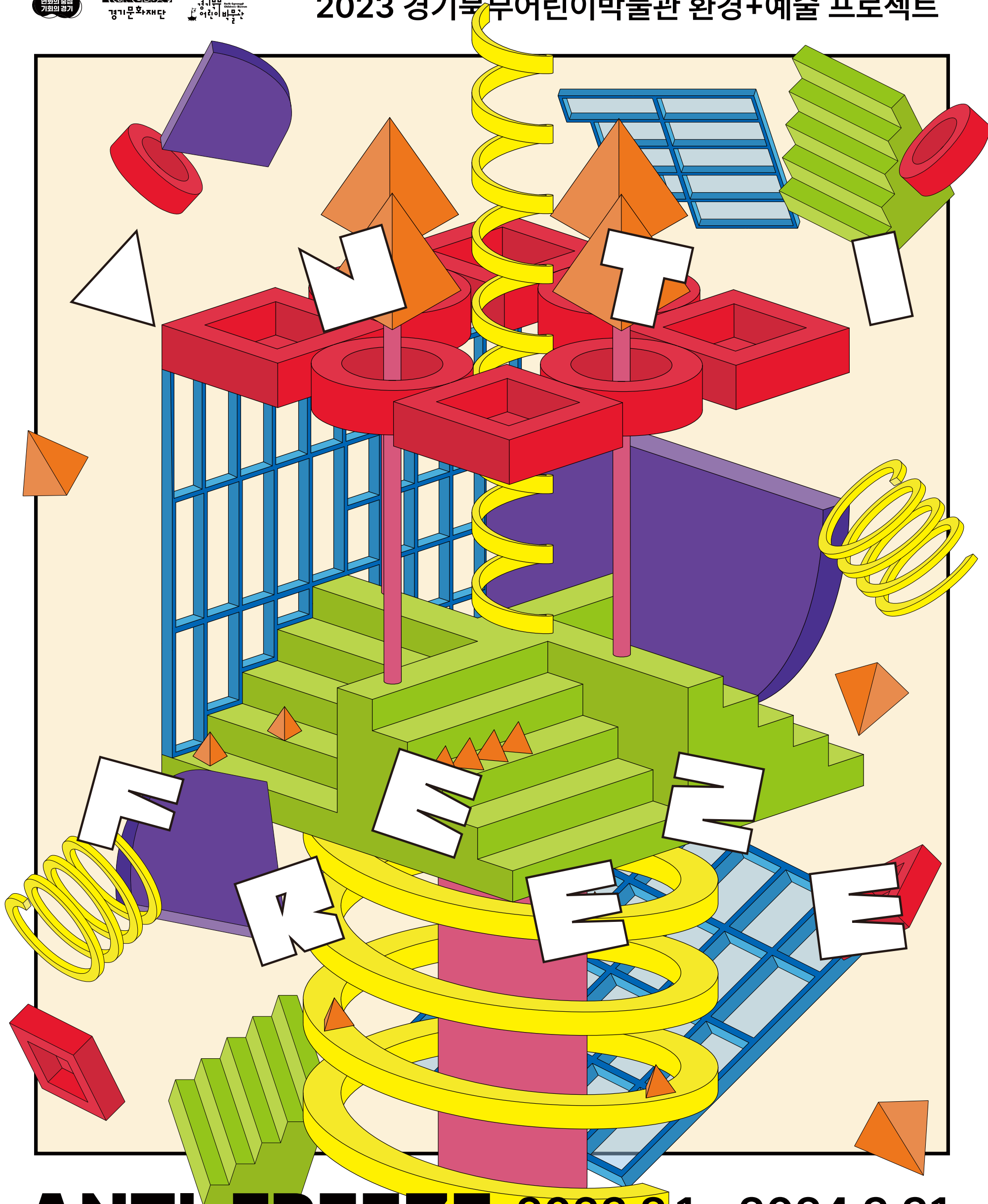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성향이 결코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목표지향적인 모습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엄청난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다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에 스스로를 잠식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양 날의 검”인 셈입니다. 칼을 한 장만 뽑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을 시작한 이상, 딱 어느정도만 바라고 절제하거나 주변을 돌아보며 멈춘다는 것은 사람에게 너 무 나 도 어 려운 일 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바람들은 사람을 극 단 적 인 상 황 으 로 몰고가기도 합니다. 카드에 칼과 함께 그려진 극단적인 상황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다른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놓일지는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자기객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타로카드에 그려진 칼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바람이 넘치는 나머지 나의 소중한 것들과 대결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LE JARDIN DE LA PAIX
fait avec amour

Today's Mood Mirror BARBIE'S HEART

@lejardindela paix

언제든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들려주세요.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는 곳.
Le Jardin de la Paix 평화의 정원



ANTI-FREEZE 2023.8.1 - 2024.3.31

: 얼어붙지 않을 거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공간

박수현 소수빈 장인희 피스오브피스